

2019년 A형 간염 유행 기간 중 경기남부에서의 급성 E형 간염 실태 및 단독 감염 사례

분당제생병원 내과

*박지찬, 박영민

서론: E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적도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인성 급성 간염의 주요 원인이다. 한국인에서 IgG-anti-HEV 항체 보유율은 약 15%로, 국내에서도 급성 E형 간염이 발생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 A형 간염은 약 2-3년 주기로 유행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2019년 전반기에 발병률 증가를 보였다. 이에 2019년 전반기 단일 기관(분당제생병원) 내 HEV 감염 실태를 조사했고, IgG-anti-HAV 항체 양성 환자에서 급성 E형 간염이 발생된 1예를 경험하여 환자의 임상상을 함께 보고한다. HEV 발생 실태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A형 간염 발병은 8478명, 분당제생병원(경기도 성남시)에서는 99명이었다. 이 중 4명이 IgM-anti-HEV 양성으로 중복감염 진단되었다. 추가적으로 1명은 HEV에 단독 감염되었다. **증례:** 52세 여자 환자가 혈청 AST/ALT가 172/250 IU/L로 증가되어 내원했다. 병력으로 당뇨병 및 합병증(망막병증 시력손실, 신기능 저하)이 있고, 6개월내 여행력, 특이 식이나 약물 복용력 및 음주력은 없었다. 복부 초음파 및 CT 검사상, 급성 간염 소견을 보였고 A형, B형, C형 바이러스성 간염은 배제되었다. 추가로 검사한 자가면역 간질환 검사와 EBV와 CMV 항체 모두 음성하였고, IgM-anti-HEV 항체 양성이었기에, 급성 E형 간염으로 진단했다. 피로 및 소화불량에 대한 보존적 치료했으며, 입원 기간은 15일이었다. 퇴원 28일 후 간 기능 검사는 r-GTP 이외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고찰:** 국내 급성 E형 간염은 연간 약 60명으로 보고되어있으나, 국가 지정 감염병으로 등록되지 않아 올해 발생 빈도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고, 단일 기관 발생빈도로 보아 전국적인 발병 빈도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성 E형 간염 환자의 임상 경과를 증례에서 볼 수 있듯이 A형 간염과 유사하므로, 급성 간염의 감별 진단과정에서 IgG-anti-HAV 양성인 경우에도 IgM-anti-HEV 검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본 자료는 HAV 유행 시기에 HEV 감염률도 증가할 것을 시사하며, 바이러스성 간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HEV 감염 감시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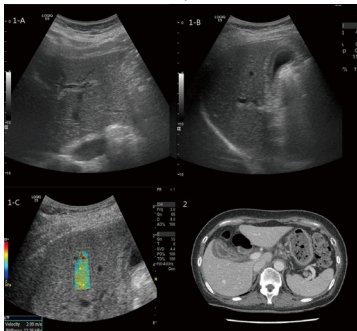


Figure 1. 입원 전 복부초음파

Figure 2. 입원 전 Liver CT

	HD #1	HD #4	HD #8	HD #11	HD #15	POD #7	POD#28
AST(IU/L)	227	275	215	185	188	94	23
ALT(IU/L)	457	397	170	95	71	46	31
T. Bilirubin (mg/dL)	3.74	2.79	2.57	2.43	2.26	1.88	1
ALP(IU/L)	494	479	506	425	506	378	237
r-GTP(IU/L)	316	310	304	294	312	314	165